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 독해에 대한 해설

By. <비핵화>를 공부한 Google GEMINI

(가)

1문단 읽기: 영화와 대중의 취향

[문장 ①]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문장 ②]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문장 ③]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 ②, ③을 읽는 순간): "첫 문단은 글의 도입부 역할을 하네. 핵심 내용은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다'는 것.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배경이 되는 '뼈대' 정보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일 수도 있겠어. 일단 머릿속에 '영화 ↔ 대중 취향'이라는 관계를 입력해두자."

- 여기서 [핵심 정보 패턴 3] 평서문으로 화제 제시 → 구체화 패턴이 나타났고,
- [PART B-5 예시](장르 영화)를 통해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

(1문단 독해 완료 후): "1문단은 영화에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다는, 글 전체의 대전제를 제시했어. 하지만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야. 2문단부터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은 취향 '말고' 또 무엇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지."

(누적 구조도)

[(가) 1문단까지의 구조도]

└─ 뼈대: 영화 ↔ 대중의 취향 반영

2문단 읽기: 크라카우어 - 영화 이면에 숨겨진 '이념' 읽기

[문장①]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문장②]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장③]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문장④]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문장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장⑥]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을 읽는 순간): "예상대로 학자가 나왔다. '크라카우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영화에는 취향뿐만 아니라 '이념'도 반영된다. 1문단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면서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네. '취향 + 이념'이 반영된다는 게 이 문단의 핵심 주장, 즉 새로운 '뼈대' 정보다."

여기서 [PART D-10. 요소 간 관계]를 통해 '취향'에 '이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며 1문단의 정보를

확장했다.

(문장②~⑤를 읽는 순간): "그런데"라는 역접 표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군. 이념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숨겨져 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지? 아, '표면의 모티브나 이미지'를 '해석'해서 그 '이면의 이념'을 읽어내는구나. **표면(이미지) → 해석 → 이면(이념)** 이라는 과정이 크라카우어 이론의 핵심 방법론이네."

(문장⑥을 읽는 순간):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주네.

- 표면(이미지): 밀실, 광인, 독재자
- 이면(해석된 이념): 현실 도피 심리, 왕정복고 이념
- 이 예시를 통해 앞서 설명한 방법론을 완벽하게 이해했어."

[PART B-5. 예시]는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를 돕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2문단 독해 완료 후): "2문단은 크라카우어의 이론을 소개했어. 핵심은 '영화의 표면적 이미지를 해석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의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 그럼 3문단은 다른 학자가 나와서 크라카우어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크라카우어가 '이미지'에 집중했다면, 다른 학자는 '스토리'나 '서사' 같은 다른 요소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

(누적 구조도)

[(가) 2문단까지의 구조도]

- └─ 뼈대: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과 '이념'이 반영됨
- └─ 살점이 1 (크라카우어의 이론)
 - └─ 핵심 주장: 이념은 '이면'에 숨겨져 있음
 - └─ 분석 방법: 표면의 '이미지/모티브' 해석 → 이면의 '이념' 발견

3문단 읽기: 제임슨 - '서사'를 통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문장①]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문장②]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문장③]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④]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문장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문장⑥]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을 읽는 순간): "역시! 예측대로 다른 학자, '제임슨'이 나왔다. 둘을 비교·대조하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겠네.

크라카우어: '이미지' 해석 → 사회 '심층적' 이해
제임슨: '서사' 분석 → 사회 '총체적' 이해

분석 대상(이미지 vs 서사)과 목표(심층 vs 총체)가 다르구나. 이 차이점을 명확히 잡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여기서 [PART C-6. 하위 범주로 쪼개기] (혹은 비교/대조) 메커니즘을 통해 두 학자의 이론을 명확히 구분했다. '제임슨의 이론'이 (가) 글의 마지막 '**빠대**'가 된다.

(문장②~⑤를 읽는 순간): "제임슨 이론의 논리적 과정을 따라가 보자.

문제점: 현재 사회는 파편적이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해결책: '역사화'를 통해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하면 된다.

방법: '서사'를 활용한다. 왜? 서사는 본질적으로 사건을 이미 끝난 과거처럼 '회고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 아하, '서사'라는 도구가 '역사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 '역사화'가 파편적인 현재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게 해준다는 거구나. 서사 → 역사화 → 총체적 이해 라는 인과 관계가 제임슨 이론의 핵심이다."

-> [핵심 정보 패턴 2] 문제점 등장 → 해결 구조를 파악하고, [PART B-3. 인과] 관계를 통해 제임슨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이해했다.

(문장⑥을 읽는 순간): "이 '역사화'는 SF에도 적용된다. 미래를 다루는데 어떻게 역사화가 되지? 아, SF도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회고적'으로 서술하니까 가능하겠구나.

(누적 구조도)

[(가) 전체 구조도]

└─ 빠대: 영화를 통해 사회의 이념 읽기

└─ 1. 크라카우어

└─ └─ 분석 대상: '이미지/모티브'

└─ └─ 분석 목표: 이면에 숨은 이념의 '심층적' 이해

└─ 2. 제임슨

└─ └─ 분석 대상: '서사'

└─ └─ 분석 목표: 사회의 '총체적' 이해

└─ └─ 살덩이(방법론): 서사(회고적) → 현재를 '역사화' → 총체적 조망 가능

(나)

1문단 읽기: SF의 정의와 핵심 요건 '개연성'

[문장①]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문장②]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③]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③을 읽는 순간): "(가) 마지막에 나온 소재인 SF와 연결되네! (가)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며 읽어야겠어. 먼저 SF가 뭘지 정의하고 있어. '과학 지식 기반 + 허구적 설정'. 그런데 중요한 건 '과학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구조네. 그럼 뭐가 중요한데? '개연성'. 즉, '말이 되게끔'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것이 (나) 글의 논의를 위한 첫 번째 '**빠대**'다."

-> 여기서 [PART A-1. 개념·정의]를 통해 SF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PART E-17. A가 아니다. B다]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적 진위'가 아닌 '개연성'이 SF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인지했다.

(1문단 독해 완료 후): "1문단은 SF의 정의와 함께, SF의 핵심은 과학적 사실 여부가 아닌 '개연성'임을 강조했다. 이게 핵심 정보일 가능성이 높겠군."

(누적 구조도)

[(나) 1문단까지의 구조도]

- └─ 빠대: SF(Science Fiction)
- └─ 핵심 요건: 과학적 진위(X) → 개연성(O)

2문단 읽기: SF의 특징 ① - '노붐'이 주는 경이로움

[문장①]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문장②]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문장③]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다. [문장④]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문장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문장⑥]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③을 읽는 순간): "SF의 첫 번째 특징으로 '경이로움'을 제시했어. 그리고 이 경이로움을 주는 대상을 '수빈'이라는 학자가 '노붐(Novum)'이라고 불렀대. 새로운 핵심 용어 등장! '노붐' = 경이로움을 주는 새로운 대상. 이 단어가 'SF라는 중심 소재'에 붙는 2문단의 핵심 키워드, 즉 '빠대'다."

-> 여기서 [PART A-1. 개념·정의]를 통해 '노붐'이라는 핵심 개념을 파악했다.

(문장④~⑥을 읽는 순간): "노봄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

일회성 장치가 아니라 지배적/핵심적 요소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드러냄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냄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이라고까지 부르는구나. 노봄이 단순한 신기한 볼거리가 아니라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

-> [PART C-8. 나열]과 [PART A-1. 개념·정의]를 통해 '노봄'의 다층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2문단 독해 완료 후): "2문단은 수빈의 이론을 빌려 SF의 핵심 요소인 '노봄'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했어. SF의 첫 번째 특징이 '노봄'이었다면, 3문단에서는 수빈의 이론을 바탕으로 SF의 또 다른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설명할 것 같다."

(누적 구조도)

[(나) 2문단까지의 구조도]

└── 뼈대: SF(Science Fiction)

└── 핵심 요건: 개연성

└── 살점이 1 (수빈의 이론 - 특징)

└── 1. 노봄(새로움): 경이로움을 유발하는 핵심/지배적 요소

3문단 읽기: SF의 특징 ② - '인지적 낯센'을 통한 현실 비판

[문장①]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문장②]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③]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문장④]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센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문장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문장⑥] 이 '낯센'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문장⑦] 따라서 인지적 낯센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④를 읽는 순간): "수빈의 이론이 계속되네. SF는 그냥 허구가 아니라 '현실의 반영'이래. 왜? 그 시대의 현실에 기반해서 상상하니까. 그래서 SF의 세계는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이 '다름'이 뭘 만들어내냐면, '인지적 낯센'을 만들어낸대. 이것이 SF의 두 번째 핵심 기능, 즉 새로운 '**뼈대**'다."

-> 여기서 [PART B-3. 인과](현실 반영 → 유사하면서도 다름 → 인지적 낯센) 관계를 통해 '인지적 낯센'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했다.

(문장⑤~⑦을 읽는 순간): "이 '인지적 낯센'이 하는 역할이 뭐지? '낯설고 새롭게 느끼게' 해서, 결국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아! 그냥 낯설게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낯센을 통해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성적 성찰'이 최종 목표구나. 낯센(감각적 충격) → 현실 비판/성찰(이성적 활동) 이라는 과정이네."

(3문단 독해 완료 후): "3문단은 SF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인 '인지적 낯섬'을 설명했어. 이것은 현실과 다른 SF 세계를 통해 역설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기능이지. 2문단의 '노름', 3문단의 '인지적 낯섬'까지 수빈의 SF 이론을 설명했어. 4문단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SF의 또 다른 역할이나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할 것 같다."

(누적 구조도)

[(나) 3문단까지의 구조도]

- └─ 뼈대: SF(Science Fiction)
- └─ 핵심 요건: 개연성
- └─ 살점이 (수빈의 이론 - 특징/기능)
 - └─ 1. 노름(새로움): 경이로움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
 - └─ 2. 인지적 낯섬: 현실을 비판/성찰하게 하는 기능

4문단 읽기: SF의 역할 - '유토피아' 탐색

[문장①]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문장②]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문장③]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①, ②를 읽는 순간): "수빈의 이론이 계속되네. SF와 유사한 과거의 이야기 장르로 '유토피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 둘 다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유토피아'가 SF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는 거군."

-> [PART D-10. 요소 간 관계](유사성)를 통해 SF와 유토피아 이야기의 연결점을 파악했다.

(문장③을 읽는 순간): "마지막으로 SF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네.

문제점: 현재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 오염, 전쟁 등).

해결(방안 제시): SF가 현실 너머의 이상적 세계('유토피아')를 탐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고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SF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야."

글 전체 독해 완료 후

"[최종 요약] 이 지문은 (가)와 (나), 두 편의 글로 구성되어 영화와 SF라는 구체적인 예술 장르를 통해 사회를 읽어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가) 글은 영화를 사회 분석의 텍스트로 보는 두 학자,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을 비교·대조했다. 크라카우어는 '이미지'를 통해 숨겨진 '이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 했고, 제임슨은 '서사'의 회고적 특징을 통해 파편화된 현재를 '총체적'으로 역사화하고자 했다.

(나) 글은 SF 연구자 수빈의 이론을 중심으로 SF의 본질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 SF는 '개연성'을 바탕으로, '노름'을 통해 경이로움을 주고, '인지적 낯섦'을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현실의 위기 속에서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두 글은 모두 예술(영화, SF)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공통된 전제를 깔고 있다. (가)는 분석의 '방법론'(이미지 vs 서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나)는 장르의 '내적 원리와 사회적 기능'(노름, 인지적 낯섦, 유토피아 탐색)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 글이었다."

1문단 읽기

[문장 ①]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문장 ②]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장 ③]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㉓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㉔ 기피하였다. [문장 ④]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단 시작): 자, 1문단 시작. 어디보자... 문단 전체를 쓱 훑어보니 '이런 경향이 있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 등장했다'. 아하!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핵심 정보 패턴 2] 문제점 등장(P) → 해결(S) 구조가 바로 그려져야지. 이 틀을 잡고 첫 문장부터 들어가는 거야.

(문장 ①): [문장 ①]은 '저널리즘이란...'으로 시작하네. 이건 뭐, 수능 비문학의 국룰이지. [생각 1] 개념·정의로 글의 뼈대부터 잡고 가는 거야. '아~ 저널리즘은 공적 관심사를 알리는 활동이구나.' 오케이, 머리에 넣고.

(문장 ②): [문장 ②]에서 '<20세기 중·후반>?' 시간 정보다. [생각 7] 통시적 흐름의 시작점이군. 이때 언론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바로 '권력 집단' 얘기만 '피상적으로' 했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점(P)의 시작이야.

(문장 ③): [문장 ③]을 보니, [문장 ②]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네. [생각 2] 구체화 해주면서 살을 붙이는 거지.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해.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니까(원인) 당연히 사람들이 뉴스를 '기피'하지(결과). 이건 자연스러운 [생각 3] 인과 관계잖아?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네. '기존 언론의 문제점'이라는 방이 딱 찼어.

(문장 ④): [문장 ④]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결정적인 신호야. 그럼 '공공 저널리즘'이 바로 해결책(S)이겠구나. 근데 기존 저널리즘이랑 뭐가 다른데? '공중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대. 아~ 그럼 [문장 ②]의 '권력 집단' 중심이랑 딱 대립되네. [생각 4] 역접으로 머릿속에서 '기존 저널리즘 vs 공공 저널리즘' 구도를 명확하게 나눠놔야겠다.

(1문단 독해 완료 후): 1문단은 결국 '옛날 저널리즘, 문제 많았지? (P) 그래서 공공 저널리즘이 나왔어 (S)' 이 한마디네. 그럼 다음 문단에선 당연히 '그래서 공공 저널리즘이 뭐데?' 하면서 얘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지. 예측 완료.

(누적 구조도)

[1문단까지의 구조도]

└─ 키워드: 저널리즘

└─ 핵심 정보 1: 기존 언론의 문제(P)와 대안(S)인 공공 저널리즘

└─ P (문제점): <20세기 중·후반> 권력 중심의 피상적 보도

└─ 인과(→): 공중과 괴리 → 공중이 뉴스 기피

└─ S (해결책): [공공 저널리즘] 등장

└─ 핵심: 공중의 관심사를 중심 의제로 삼음

2문단 읽기

[문장 ①]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장 ②]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 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문장 ③]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문장 ④]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장 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문장 ⑥]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 ⑦]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 ①): 첫 문장 딱 보니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 게임 끝났네. 이건 100% [생각 6] 하위 범주로 쪼개기야. 이제부터 리프만 방, 듀이 방, 두 개를 만들어서 정보를 나눠 담아야 돼. 머릿속에 바로 A vs B 표를 그리는 거지.

(문장 ②, ③): 자, '리프만' 방부터 채워보자. 리프만은 공중을 어떻게 봤지? '고정 관념' 있고 '전문 지식 부족'하대. 아~ 리프만은 대중을 좀 똑똑하지 않게 보는구나.

(문장 ④): '따라서'가 나왔네. [생각 3] 인과 신호지. 대중이 무지하니까(원인), 언론은 '전문가'가 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그냥 전달해줘야 한다(결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이네. 오케이, 리프만 방 정리 끝.

(문장 ⑤): "반면". 여기서 [생각 4] 역접의 벽을 딱 치고 '듀이' 방으로 넘어가는 거야.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본대. 와, [문장 ②,③]의 리프만이랑 완전 정반대네. 이게 핵심 차이점이구나!

(문장 ⑥): 공중을 합리적으로 보니까 언론의 역할도 당연히 다르겠지. 역시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적 담론의 장', 즉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대. 아~ 언론의 역할을 리프만과는 다르게 봤네.

(문장 ⑦): 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 2] 구체화 해주네. 그래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니까. 그렇군.

(2문단 독해 완료 후): 2문단은 결국 '리프만 vs 듀이'의 대결이었어. 1문단에서 말한 '공공 저널리즘'은 딱 봐도 듀이 쪽 생각이랑 이어지잖아? 그럼 다음 3문단에서는 듀이의 생각을 이어받은 공공 저널리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주겠지.

(누적 구조도)

[2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공공 저널리즘
- └── 핵심 정보 1: 기존 언론의 문제(P)와 대안(S)인 공공 저널리즘
- └── 핵심 정보 2: 공공 저널리즘의 논의 배경 (리프만 vs 듀이)
 - └── 리프만 (A)
 - └── 공중: 비합리적, 무지 (고정관념, 지식 부족)
 - └── 언론: 전문가로서 객관적 정보를 '일방적 전달'
 - └── 듀이 (B) - (공공 저널리즘과 연결)
 - └── 공중: 합리적 존재
 - └── 언론: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촉진' → 민주주의 발전

3문단 읽기

[문장 ①]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문장 ②]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문장 ③]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 ①): '로젠'이라는 사람을 통해 공공 저널리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네. 1, 2문단의 내용을 이어 받아 살을 붙이는 [생각 2] 구체화 과정이야. '목적'이 뭐래? 아~ '공중을 참여시켜서' '공론장을 만들고' ' 해결 방안을 토의'하게 한다. 듀이 생각 그대로네.

(문장 ②): "이를 위해..." 목적을 이룰 '방법'이 나오겠군. 목적-수단의 [생각 3] 인과 관계. 방법은 '사회 과학적 방법'이래. '설문, 회의, 인터뷰' 같은 거. 아~ 이런 게 그 방법의 예시구나. [생각 5] 예시의 활용 이네.

(문장 ③): '~는 아니지만, ~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이런 표현은 주목해야 돼. 일종의 [생각 17] A가 아니라 B다 구조지. '문제 해결을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A), 토론의 장을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B)'. 현실적인 한계랑 핵심 가치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네.

(3문단 독해 완료 후): 자, 3문단에서는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 방법, 의의까지 다 설명했어.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개념 설명이 끝나면, '근데 이걸 이런 비판도 있어' 하면서 반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그런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야.

(누적 구조도)

[2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공공 저널리즘
- └─ 핵심 정보 1: 기존 언론의 문제(P)와 대안(S)인 공공 저널리즘
- └─ 핵심 정보 2: 공공 저널리즘의 논의 배경 (리프만 vs 듀이)
 - └─ 리프만 (A)
 - └─ 공중: 비합리적, 무지 (고정관념, 지식 부족)
 - └─ 언론: 전문가로서 객관적 정보를 '일방적 전달'
 - └─ 듀이 (B) - (공공 저널리즘과 연결)
 - └─ 공중: 합리적 존재
 - └─ 언론: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촉진' → 민주주의 발전
- └─ 핵심 정보 3: 공공 저널리즘의 구체화 (로젠)
 - └─ 목적: 공중을 '참여자'로 보고 '공론장'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 방안 토의'
 - └─ 방법: [사회 과학적 방법] (예: 설문, 회의, 인터뷰)
 - └─ 의의/한계: 실제 해결을 보장하진 않지만, 공론장 형성 자체로도 가치 있음

4문단 읽기

[문장 ①]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장 ②]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장 ③]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문장 ④]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속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 ①): 거봐, 내 예상이 맞았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새로운 얘기 시작이야. 이것도 뻔한 패턴, [핵심 정보 패턴 2] 처럼 비판(P)이 나오면 반드시 재반박(S)이 나올 거야. 비판의 핵심은 '객관성'이 무너진다는 거네.

(문장 ②): 왜 객관성이 무너진다고 할까? 그 이유를 [생각 2] 구체화 하네. 논리 흐름을 보자. '공중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원인) → 언론인의 주관성이 들어가서(과정) → 객관적이지 못하게 된다(결과)'. [생각 3] 인과의 논리네. 이게 비판하는 쪽 주장이야.

(문장 ③):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 이제 재반박(S) 시작. '마이어'라는 사람이 등판했어. 그의 무기는 '방법론적 객관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야. [생각 1] 개념·정의로 새로운 용어를 던지면서 받아치네.

(문장 ④): 그래서 그 '방법론적 객관주의'가 뭔데? [문장 ③]에 대한 설명이지. ([생각 2] 구체화) 아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구나! 이 단어, 어디서 봤지? 바로 3문단에서 봤잖아! 그 때 나왔던 정보가 여기서 비판을 막는 핵심 무기로 다시 쓰이네. 이게 바로 정보의 유기적 연결이지.

즉, '과학적 방법을 쓰니까(원인) → 주관성이 개입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결과)'. 완벽한 반박 논리야.

(4문단 독해 완료 후): 4문단은 '야, 너네 너무 주관적인 거 아냐?(P)'라는 비판에 대해 '아니, 우리 과학적인 방법 써서 괜찮아(S)'라고 답하면서 끝났어. 이제 진짜 할 말 다 했네. 글 전체가 완결된 느낌이야.

(누적 구조도)

[4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공공 저널리즘
- └─ 핵심 정보 1: 기존 언론의 문제(P)와 대안(S)인 공공 저널리즘
- └─ 핵심 정보 2: 공공 저널리즘의 논의 배경 (리프만 vs 듀이)
 - └─ 리프만 (A)
 - └─ 공중: 비합리적, 무지 (고정관념, 지식 부족)
 - └─ 언론: 전문가로서 객관적 정보를 '일방적 전달'
 - └─ 듀이 (B) - (공공 저널리즘과 연결)
 - └─ 공중: 합리적 존재
 - └─ 언론: 공적 담론의 장을 '형성/촉진' → 민주주의 발전
- └─ 핵심 정보 3: 공공 저널리즘의 구체화 (로젠)
 - └─ 목적: 공중을 '참여자'로 보고 '공론장'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 방안 토의'
 - └─ 방법: [사회 과학적 방법] (예: 설문, 회의, 인터뷰) (이 정보가 4문단에서 재활용됨)
 - └─ 의의/한계: 실제 해결을 보장하진 않지만, 공론장 형성 자체로도 가치 있음
- └─ 핵심 정보 4: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P)과 재반박(S)
 - └─ P (비판): 객관성 훼손 우려 (공중과 밀접 결합 → 주관성 개입)
 - └─ S (재반박: 마이어): [방법론적 객관주의] 추구 (사회 과학적 방법 활용 → 주관성 보완)

[글 전체 독해 완료 후 최종 요약]

이 글은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개념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정보를 단계적으로 쌓아 올린, 아주 잘 설계된 건물 같은 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복기해보면, 첫째로 '문제점(P) 제시'를 이용해 '왜 공공 저널리즘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주며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둘째, [생각 6] 쪼개기를 통해 리프만과 듀이라는 상반된 두 철학을 비교하며 공공 저널리즘의 사상적 좌표가 어디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그렇게 확보된 개념을 로젠의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목적과 '사회 과학적 방법'이라는 방법론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객관성' 문제라는 비판(P)에 대해 3문단에서 던져두었던 '사회 과학적 방법'이라는 카드를 다시 활용하여 '방법론적 객관주의'로 재반박(S)하면서, 글 전체의 논리적 고리를 완벽하게 닫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모든 정보가 다음 정보를 불러오고, 앞선 정보가 뒤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유기적 연결과 누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지문입니다.

1문단 읽기

[문장 ①]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문장 ②]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문장 ③]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문장 ④]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굽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문장 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문장 ⑥]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단 시작): 자, 첫 문장부터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발전을 이루었다." 딱 나오네. 아~ 이 글은 기술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려나? [생각 7] **동시적 흐름**으로 글 전체의 판을 짜고 시작하는 거야. 이 문단은 당연히 '과거' 얘기겠지.

(문장 ②~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하면서 쪽 설명하네. '나팔 준비 → 회전판 대고 → 소리 들려주면 → 진동 → 바늘이 홈을 판다'. 이걸 뭐, 전형적인 [생각 12] **순서·과정 설명**이야. '아, 소리의 물리적인 떨림을 그대로 판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새기는 거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문장 ⑥): 마지막 문장에서 이 방식의 핵심 이름을 딱 알려주네. "아날로그 형태". 이게 키워드구나! '소리 파형을 변환 없이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 = 아날로그'. 오케이.

(1문단 독해 완료 후): 1문단은 소리 저장의 '과거' 방식인 '아날로그'를 축음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어. 그럼 뭐, 다음 문단은 100%지. '과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현재' 얘기가 나올 차례야. 아날로그랑은 다른 방식이 나오겠네.

(누적 구조도)

[1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소리 저장 기술의 발전
 - └─ 핵심 정보 1: <과거> 아날로그 방식
 - └─ 예시: 축음기
 - └─ 원리(과정): 소리 → 진동 → 바늘로 판에 홈을 새겨 기록 (물리적 복제)

2문단 읽기

[문장 ①]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문장 ②]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문장 ③]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문장 ④]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문장 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문장 ⑥]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 ①): "현재는..." 내 예상이 정확했네. [생각 7] 통시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과거(아날로그)와 현재 사이에 [생각 4] 역접의 벽이 세워졌어. 현재는 '디지털 신호'래. '아, 디지털은 0과 1로 된 이진수구나'. [생각 1] 개념·정의 완료.

(문장 ②, ③): 디지털 방식의 특징이 뭐지?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아~ '모든', '균일한' 같은 표현은 진짜 중요한 신호야. [생각 16] 극단적 범주지. 이런 건 나중에 '예외'나 '반대' 상황이 나올 거라는 강력한 복선이야. '일반적으로 16비트를 할당한다. 그러면 예외도 있으려나? 일단 지금은 그냥 예시 정도로 보고 넘어가자.

(문장 ④): "비트의 개수가 늘면... 원음에 가까워진다." 오, 이건 **[생각 10] 공식(요소 간 관계)**이네. '비트 수 ↑ = 음질 ↑'.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

(문장 ⑤, ⑥): "그런데..." 나왔다! 역접.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겠지. "데이터 양이 많다." 이게 문제점(P)이구나. "따라서..."라는 강력한 [생각 3] 인과 신호 뒤에 해결책(S)이 나오네. "압축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 문단은 결국 [핵심 정보 패턴 2] 문제점 등장 → 해결 구조였어. '디지털 음원, 음질은 좋는데 용량이 너무 커(P). 그래서 압축해야 해(S)'.

(2문단 독해 완료 후): 2문단은 '현재'의 디지털 방식을 설명하고, '용량 문제' 때문에 '압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럼 다음 문단은? 당연히 '그 압축을 대체 어떻게 하는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지.

(누적 구조도)

[2문단까지의 구조도]

└─ 키워드: 소리 저장 기술의 발전

└─ 핵심 정보 1: <과거> 아날로그 방식 (축음기)

└─ 핵심 정보 2: <현재> 디지털 방식

└─ 원리: 소리 → 디지털 신호(이진수)로 변환

└─ 특징: 모든 소리에 '균일한' 비트 할당 (※나중에 비교될 중요 정보!)

└─ 문제점(P):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음

└─ 해결책(S): 압축의 필요성 제기

3문단 읽기

[문장 ①]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다. [문장 ②]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문장 ③]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문장 ④]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문장 ⑤]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문장 ⑥]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문장 ⑦]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 ①, ②): 역시 예측대로 압축 기술 얘기야. 이름은 '지각부호화'. [생각 1] 개념·정의부터 해야지. '아~ '지각', 즉 인간의 감각 능력을 이용해서 부호화(압축)하는 거구나. 우리 귀가 둔해서 잘 못 듣는 소리는 그냥 빼버리는 기술이네.'

(문장 ③):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앞으로 할 얘기를 예고하는 거잖아. [생각 6] 하위 범주로 쪼개기 신호! '지각부호화'라는 큰 기술을 ① 최소가청강도, ② 차폐, 이 두 가지 원리로 나눠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문단은 당연히 ①번 타자 얘기를 하겠지.

(문장 ④, ⑤): '최소가청강도'가 뭐지? [생각 1] 개념·정의. '조용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최솟값. 아~ 이 값보다 작으면 어차피 못 들으니까 데이터에서 지워버려도 되겠네. 압축의 원리가 바로 이거구나.

(문장 ⑥, ⑦): 근데 이 최솟값이 '주파수별로' 다르대. 개념에 살을 붙이는 [생각 2] 구체화야. '예를 들어' 하면서 [생각 5] 예시를 주네. '아, 우리가 고음 쪽 작은 소리는 잘 듣는데, 저음 쪽 작은 소리는 잘 못 듣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끝.

(3문단 독해 완료 후): 3문단은 '지각부호화'의 첫 번째 원리인 '최소가청강도'를 설명했어. [생각 6] 쪼개기의 약속을 했으니까, 다음 문단은 두 번째 원리인 '차폐'에 대해 설명할 게 너무나도 명백해.

(누적 구조도)

[3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소리 저장 기술의 발전
 - └ 핵심 정보 1: <과거> 아날로그 방식 (촉음기)
 - └ 핵심 정보 2: <현재> 디지털 방식
 - └ 원리: 소리 → 디지털 신호(이진수)로 변환
 - └ 특징: 모든 소리에 '균일한' 비트 할당 (※나중에 비교될 중요 정보!)
 - └ 문제점(P):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음
 - └ 해결책(S): 압축의 필요성 제기
 - └ 해결책(S): 압축 → [지각부호화] 기술 사용
 - └ 원리: 인간의 청각 특성을 이용해 불필요한 소리 제거
 - └ 쪼개기 ①: 최소가청강도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최솟값, 주파수마다 다름)

4문단 읽기

[문장 ①]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문장 ②]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장 ③]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문장 ④]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문장 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문장 ⑥] 지각부호화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장 ①): "한편..." 봐, [생각 6] 쪼개기의 두 번째 항목인 '차폐' 얘기 바로 시작하잖아. '차폐'가 뭐지? [생각 1] 개념·정의. '아~ 시끄러운 데서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경험하는 거네.'

(문장 ②, ③, ④): 차폐에 대한 부가 설명들이야. '주파수가 비슷할수록 차폐가 잘 된다', '차폐되는 구간을 임계대역이라 부른다', '고음일수록 임계대역이 넓다'. 임계 대역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차폐음이 뭔지, 차폐의 강도와 주파수의 관계를 이해했으면 됐겠다!

(문장 ⑤): 이게 이 문단의 최종 보스네. "차폐 문턱값". [생각 1] 개념·정의가 또 나왔어. 이게 뭐냐면, '차폐 현상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최솟값'이래. 아까 3문단에서 나온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기준이었고, 이건 시끄러울 때의 새로운 기준선이구나! 이게 진짜 실전용 기준선이네.

(4문단 독해 완료 후): 4문단에서는 '차폐' 현상을 이용해서 '차폐 문턱값'이라는 실전 개념을 만들었어. 자, 그럼 이제 지각부호화의 무기 두 개(최소가청강도, 차폐 문턱값)가 다 준비됐네.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는 뭘 할까? 당연히 이 무기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압축하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겠지. [생각 12] 순서·과정이 나올 타이밍이야.

(누적 구조도)

[4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소리 저장 기술의 발전
- └── 핵심 정보 1: <과거> 아날로그 방식
- └── 핵심 정보 2: <현재> 디지털 방식과 압축
 - └── 해결책(S): 압축 → [지각부호화] 기술
 - └── 원리 1: 최소가청강도 (조용할 때의 기준선)
 - └── 원리 2: 차폐 (시끄러울 때의 현상)
 - └── 핵심 개념: 차폐 문턱값 (차폐를 고려한 실제 기준선)

5문단 읽기

[문장 ①]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문장 ②]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문장 ③]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문장 ④] 즉 지각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실시간 생각의 흐름:

(문단 시작): "지각부호화에서는..." 아 이제 위에서 준 두 원리를 활용해서 지각부호화 기술을 구체화하겠군! 위에서 이해한 원리를 붙여서 지각부호화 기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겠다.

(문장 ①): 과정 1단계. ① 소리를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② 각 구역마다 '차폐 문턱값'을 계산한다. 아~ 앞에서 설명한 개념들을 이제야 실제로 써먹네. 정보가 착착 쌓이는 느낌이야.

(문장 ②): 과정 2단계. 비트를 어떻게 할당하지? '차폐 문턱값보다 훨씬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준다'. 즉, 우리 귀에 잘 들리는 중요한 소리일수록 데이터를 많이 써서 음질을 좋게 보존한다는 거네. 잠깐만! 2문단에서 디지털 원음은 비트를 '균일하게'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다르게' 주네! 2문단에서 내가 복선이라고 했던 [생각 16] 극단적 범주가 여기서 터지는구나. (원음: 균일 할당) vs (압축: 차등 할당). 이 [생각 4] 역접의 대립이 이 글의 핵심이야!

(문장 ③): 과정 3단계.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 즉 어차피 못 듣는 소리는? "제거한다." 심플하네. 이게 바로 용량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구나.

(문장 ④): "즉..." 마지막 요약 문장이야. [생각 2] 재진술이지. '지각부호화 = 각 구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해서 압축하는 기술'. 2문단의 '균일한'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을 강조하면서 글이 끝나네. 완벽한 마무리야.

(누적 구조도)

[5문단까지의 구조도]

- └── 키워드: 소리 저장 기술의 발전
- └── 핵심 정보 1: <과거> 아날로그 방식
- └── 핵심 정보 2: <현재> 디지털 방식과 압축
 - └── 해결책(S): 압축 → [지각부호화] 기술
 - └── 원리 1: 최소가청강도 (조용할 때의 기준선)
 - └── 원리 2: 차폐 (시끄러울 때의 현상)
 - └── 핵심 개념: 차폐 문턱값 (차폐를 고려한 실제 기준선)
 - └── 문턱값 이하 소리는 제거
 - └── 문턱값 이상 소리는 '차등적' 비트 할당 (중요할수록 많이!)

글 전체 독해 완료 후 최종 요약

이 글은 소리 저장 기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디지털 오디오 압축'이라는 핵심 주제를 매우 체계적으로 파고드는 설명문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보면, 먼저 [생각 7] 통시적 흐름을 통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큰 판을 짚습니다.

그 후 디지털 기술의 '용량 문제(P)'를 제기하고 '압축(S)'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핵심 정보 패턴 2]**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압축 기술인 '지각부호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 원리를 '최소가청강도'와 '차폐'라는 두 가지로 [생각 6] 쪼개기하여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을 총동원하여 '불필요한 소리는 제거하고, 중요한 소리에만 데이터를 몰아주는' 압축의 구체적인 [생각 12] 순서·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문단의 '균일한 비트 할당'과 5문단의 '차등적인 비트 할당'이라는 선명한 대립 구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대립을 축으로 모든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누적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지문입니다.